

東學農民革命 100周年 記念 學術發表會

日 時 : 1994. 12. 10 (土) 14 : 00

場 所 : 長興郡民會館 2層 小會議室

主 催 : 長 興 文 化 院

後 援 : 長 興 郡

長興地方 東學農民革命과 그 歷史的 意義

朴孟洙

(靈山圓佛敎大學, 韓國近代史)

目 次

1. 序言
2. 關聯資料
3. 主要人物
4. 展開過程과 主要戰鬪
5. 歷史的 意義

1. 序言

1892·3년 동학교단이 중심이 된 敎祖伸冤運動에서 시작하여 1894년 1월 10일 古阜농민봉기를 직접적인 계기로 삼아 그 해 3월 20일 전라도 茂長에서 전면 봉기한 동학농민혁명은 11월 公州 牛禁峙전투를 고비로 실패로 끝나 가고 있었다.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집결한 동학농민군이 대규모의 조직적 항쟁을 벌였던 우금치전투에서 패배하자 혁명지도부는 재기를 위해 후퇴를 거듭했다. 전봉준이 이끌던 농민군부대는 공주에서 논산으로, 논산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원평으로, 원평에서 태인으로 후퇴를 거듭하면서도 11월 25일경에는 院坪과 泰仁에서 일본군과 관군으로 구성된 연합토벌군에 대항하는 최후의 一戰을 벌였다. 그러나 원평과 태인싸움 역시 농민군측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이제 全瑋準 孫化中 金開南 등 살아 남은 농민군지도자들은 더 이상의 조직적 항쟁을 포기한 채 피신길에 나서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이처럼 1894년 11월말경에는 反封建 反外勢를 혁명의 기치로 내걸었던 동학농민혁명의 불꽃은 전체적으로 서서히 꺼져 가고 있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또한 각 郡縣 단위로 수세에 몰린 동학농민군을 체포하거나 토벌하기 위한 反農民軍 부대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던 때이기도 하였다. 바로 이런 불리한 시기인 1894년 12월초 남도 땅 長興에서는 3만여명의 농민군이 碧沙驛과 長興府, 康津縣, 그리고 전라 병마절도사가 주재하던 강진 兵營마저 잇달아 점령하고, 서울로부터 세 방면으로 짓쳐 내려온 京軍과 日本軍에 맞서 장흥 '石臺들'에서 대혈전을 벌였다. 이 전투를 이끈 농민군지도자는 장성 황룡촌전투에서 '대장태'를 만들어 京軍을 물리친 것으로 알려진 李芳彦을 비롯하여 李仁煥 李仕京 具敎轍 白仁命 등 장흥 출신 동학 接主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12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항쟁의 불길은 12월 4일 碧沙驛 점령, 5일 장흥부 점령, 7일 강진현점령, 10일 병영점령, 15일 石臺들에서 토벌군과의 대격전, 17일의 冠山 玉山里전투에 이르기까지 보름 이상이나 계속되었다.

1894년 당시 그 어느 지역보다도 항쟁기간이 길고 전투 또한 치열하여 희생자가 많았던 장흥지방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은 그동안 鄉土史學者들과 天道敎敎士들에 의해 비교적 일찍부터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더욱이 장흥 일대에는 아직까지도 1894년 당시 활동했던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생생히 전해지고 있고,

혁명의 전개과정과 깊은 관계가 있는 遺蹟과 資料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으며, 당시 혁명 대열에 참여했던 농민군 후손들도 적지 않게 살아 있어서 전문 학자들에 의한 본격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전까지만 해도 장흥 지방 동학농민혁명의 구체적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 주원인은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全琫準 중심, 全羅道 古阜圈 중심의 연구에 몰두한 채, 각 지역별 사례 연구에 소홀했기 때문이며, 관련자료의 발굴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1991년에 발족된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로부터 「장흥 지방 동학농민혁명사」를 집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필자는 위원회측의 도움으로 2년여에 걸친 현지답사를 통해 장흥·강진·보성 일대에서 다수의 관련자료들을 발굴하였고, 발굴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장흥지방 동학농민혁명사」를 집필하여 지역사회와 학계에 제공한 바 있다. 이 글은 이미 간행된 『長興東學農民革命史(도서출판 예원, 1992)』에 실린 필자의 논문을 요약하고 1992년이후 새로 알려진 사실들을 보충하여 1894년 장흥 일대에서 전개되었던 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글의 전개는 첫째 장흥지방 동학농민혁명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자료는 『장흥동학농민혁명사』에 이미 소개했지만 책이 출간된 뒤에 새로 찾은 자료들을 포함하여 중요도가 높은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는 장흥 일대에서 크게 활동했던 농민군지도자들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장흥에서 활약했던 李召史라는 여성이다. 셋째 장흥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의 구체적 전개과정과 주요 전투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끝으로 장흥지방 동학농민혁명이 전체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와 그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겠다.

2. 關聯資料

10여회에 걸친 현지답사를 통해서 찾아낸 관련자료는 크게 東學(天道教)측 자료, 官邊측 자료, 儒生측 자료 등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1) 東學(天道教)측 자료

동학측자료로 중요한 자료는 7세대 동학농민군 기포과정을 직접 목격한 목격담을 담고 있는 會鎮面 新上里 출신 金在桂(1888-1938)의 수기 「교사이문 갑오년 동학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이 수기는 『天道教會月報』271호(1934년 8월호)에 실려 있다. 그중 일부 내용을 여기에 인용하여 소개한다.

“그 해(=1894년; 인용자주) 봄부터 마을에 동학열이 아주 심하여 집집마다 清水壇을 만들고 낮이나 밤이나 주문소리가 흡사 글방에서 글 읽는 소리같다. (중략) 하루는 들리는 말이 접주 李仁煥씨가 거정리 벌판에서 동학대모임을 한다고 한다. 어른은 물론이거니와 부인 아동까지도 구경을 간다고 한다. 아버지도 가시고 삼촌도 가시고 할머니도 가신다고 한다. (중략) 얼마후에 접주 이인환씨가 起包령을 나리었다. 이 기포령이 한번 발하자 어떤 일인지 사람들이 물끓듯하였다. 대장 깃발이 팔팔 날리며 머리에 석자 황명주 수건을 두르고 무릎에도 황명주 수건을 두른 동학군이 총을 든 사람, 창을 든 사람 연습차로 자주 벌판에 모이곤 하였다. (이하 생략)”

위의 내용에는 1894년 장흥 일대에 東學이 널리 포교되고 있는 모습, 일반 민중들이 동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모습, 접주의 기포형에 많은 민중들이 다투어 가담하고 있는 모습을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어 갑오년 당시 동학사상과 동학교단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또하나 동학(천도교)측 자료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天道教會月報』163號(1924년 4월호)에 실린 「天道教長興郡 宗理院」이란 자료이다. 천도교 장흥교구의 역사를 정리한 이 자료를 통해서 1894년 이전에 이미 장흥에 동학이 포교되었던 사실과 1894년 당시에 크게 활약하는 동학접주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참고할만한 자료는 康津 大口面 출신 농민군지도자 尹世顯(1857-1933)에 관한 기록이다. 이 자료는 윤세현이 죽은 1933년에 김제계가 그를 추모하면서 쓴 글로서 『천도교회월보』267호(1933년 7월호)에 실려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윤세현은 1892년에 동학에 입교하였고, 1893년 2월 충청도 報恩에 머물고 있던 해월 최시형을 만났으며, 1894년 4월에는 동지 수십 명을 거느리고 전봉준이 주도하던 1차봉기 대열에 가담하였다고 한다. 또한 동년 7월 강진으로 내려와 11월에는 장흥 李仁煥接과 합세하여 장흥과 강진, 병영을 점령할 때 활약하였다고 한다. 석대전투 패전후에는 3년간 피신 끝에 1897년 고향에 돌아와 가족을 이끌고 장흥 대덕 언지리로 이주하여 동학의 재건활동에 노력하였다고 한다.

2) 官邊측 자료

「巡撫先鋒陣騰錄」(고려대학교 소장, 『東學亂記錄』上, pp. 381~693)

이 자료는 1894년 10월 11일부터 1895년 2월 5일까지 先鋒將 李圭泰(1841~1895)가 날마다 접수 발송한 문서를 기록한 것으로 巡撫使 申正熙(1833~1895)에게 보낸 보고서와 순무사의 傳畵, 순무사의 榜示文, 관하 각군에 발송한 關文과 甘結, 전령 등이 실려 있다. 장흥 동학농민혁명과 관계된 내용은 갑오 12월 4일자로 발송한 碧沙道 察訪 金日遠의 보고로부터(『동학란기록』상, p. 576. 참조) 비롯하여 병마절도사·선봉진·강진현감·교도중대장·장흥부 공형·가리포 첨사·좌선봉진 등의 보고문이 을미년 1월에 이르기까지 걸쳐 나오고 있다.

「巡撫使呈報牒」(고려대학교 소장, 『東學亂記錄』下, pp. 1~74)

1894년 10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선봉장 이규태가 순무사 신정희에게 보낸 보첩을 수록한 것이다. 장흥 관계 내용은 1894년 12월 9일자와 12일자에 나오고 있다.

「先鋒陣呈報牒」(고려대학교 소장, 『東學亂記錄』下, pp. 125~277)

이 자료는 1894년 10월 11일부터 1895년 2월 19일까지 선봉진 소속 부대장과 각군의 수령 및 公兄이 농민군의 동향과 토벌에 관한 사항을 선봉장 이규태에게 보고한 보첩을 수록한 것으로 원문서에는 題辭가 붙어 있고 花押과 官印이 찍혀 있으나 『동학란기록』에는 제사가 본문보다 한 글자 낮추어져 인쇄되어 있고, 화압과 관인은 花押印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장흥 관계 내용은 갑오 12월 6일자 병마절도사 보고로부터 비롯하여 12월 24일의 장흥부 공형의 보고문, 12월 30일과 을미 1월 13일 강진현감의 보고문 등에 걸쳐 나타나 있다.

3) 儒生측 자료

장흥지방 동학농민혁명의 실상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가장 결정적인 자료는 아무래도 儒生들이 남긴 일기와 문집이 아닐 수 없다. 대표적으로 吾南 金漢燮(1838~1894)의 문집 『吾南集』에 실린 「警示賊徒文」, 六有 白永直(1841~1912)의 문집 『六有集』에 실린 「朴候義蹟」, 蓬坡 金炳輝(1842~1903)의 문집 『蓬坡集』, 剛齋 朴冀鉉(1864~1913)의 일기 『日史』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외에도 장흥부를 지키다가 순절한 96인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永懷堂에 관련된 자료를 모아는 「永懷堂史輯」도 중요한 자료이다.

일찌기 장흥 南上面 墨村출신 동학대접주 李芳彦과 동문수학한 사이였으나 이방언이 동학에 들어가자 절교를 선언한 김한섭은, 갑오 6월에 「적도(=동학군)에게 경고하여 보이는 글(警示賊徒文)」을 지어 동학이 향촌사회에 퍼지는 것을 극력 저지하였으며, 갑오 12월 강진현에서 민보군을 이끌고 농민군에 맞서다 희생당한 인물이다. 후일 강진을 지나던 매천 黃玟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를 남겼는데 『매천집』에 실려 있는 「過康津追金義將漢燮」이 그것이다.

『육유집』에 실린 「박후의적」은 갑오 12월 4일 長興府使로서 장흥부를 지키다가 죽은 朴憲陽의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 그 속에 장흥지방 동학농민항쟁의 역사적 전말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연파집』에 있는 김병휘의 행장은 그가 강진 민보군에 가담하여 동학군과 맞서 싸운 내용이 들어 있다.

강진 鵲川 출신의 儒生 朴冀鉉의 일기인 『日史』는 장흥 강진 일대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을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1891년 7월부터 1903년 4월에 이르기까지 장흥·강진 일대 향촌 사회의 동향과 함께 박기현과 인근 유생들과의 교유관계, 특히 갑오년을 전후한 시기 장흥·강진 일대의 동학농민군측과 관군측의 동향 및 당시 전투 상황 등을 소상히 알려주는 자료로서 장흥·강진 일대의 동학농민혁명사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는 자료이다.¹⁾

상·하 2권으로 된 순한문체 毛筆寫本으로서 上卷에는 1891년부터 1896년분까지가 찍여 있고, 下卷에는 1897년부터 1903년분까지가 찍여 있다. 그날의 날씨를 시작으로 자신의 하루 주요일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그가 교유하던 장흥 강진 일대 유생들의 이름과 관련 지명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1894년 당시의 이 지역의 역사적 상황을 복원하는 데 둘도 없는 자료가 되고 있다. 1893년분부터는 장흥 강진 일대에서 점차 세력화되고 있던 東學 포교 상황이라든지, 동학의 확산에 따른 유생들의 움직임을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동학포교를 막으려는 유생측의 조직적 대응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894년분의 일기를 보면, 全州和約이후 執綱所 통치기의 장흥 강진 일대 농민군의 활동과 그에 따른 보수 유생 및 수성군측의 대응활동이 날짜별로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장흥 일대 집강소 활동과 관련된 내용의 예는 아래와 같다.

6월 20일 乙丑 맑음

아버님께서 더위를 피하시기 위해 守恩堂으로 올라가셨다. 오늘 동학도인이라 칭하는 이들이 자라번지(鰲番地)에 모여 각처의 죄인들을 잡아 다스리고 있으며 어제 저녁에는 山城別將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사』 갑오 6월 20일조)

1) 강진유생 朴冀鉉의 일기 「日史」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필자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박맹수, 「日史와 장흥·강진지방의 농민전쟁」, (『역사연구』3, 역사학연구소, 1994.8)

6월 21일 丙寅 맑음

(전락)오후에 서실로 돌아오려 할 적에 마을 사람 여럿이 자라번지의 취회를 구경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갑오 6월 21일조)

27일 임신 아침에 맑다 오후에 흐림

동학(=동학농민군;인용자주)이 新池(현 강진군 兵營面 三仁里 신지부락;인용자주) 사는 姜敬深의 아들을 체포하였다고 한다. (갑오 6월 27일조)

이처럼 『일사』는 장흥 강진 지역 동학농민군들의 패정개혁 활동 및 執綱所 통치에 관한 사례 연구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

『永懷堂史輯』은 1894년 12월 5일 동학농민군의 장흥 입성을 저지하다 희생당한 장흥부사 朴憲陽이하 95인을 추모하기 위하여 1898년 장흥부성 동쪽에 설단한 영회당(단)에 관련된 사적을 모은 자료이다. 내용을 보면 「우선봉 이두환 장계등본(1896)」, 「영회계안(1896)」, 「고 장흥부사 박공급각위순절비문(1898 기우만 찬)」, 「영회당시서(1898 이승욱 식)」, 「어사비제(1898 이직호 제)」, 「영회당이전상량문(1928 조면형 술)」, 「영회당중건기(1932 김영근 기)」, 「영회제홀기」, 「수성장병순절록」, 「경시적도문(1894 김한섭 제)」, 「영회당이건기(이승욱 기)」 등이 실려 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되는 자료로는 1894년 6월 초에 유생인 吾南 金漢燮이 장흥 동학접주 이방언에게 보낸 「警告賊徒文」의 필사본이 『영회당사집』 속에 들어있다는 점이다. 『영회당사집』 원본은 갑오년 12월 장흥 수성 당시 守城千總의 직책에 있다가 동학농민군에 의해 희생당한 金昌祚의 증손인 金壯坤씨(장흥읍 원도리)가 소장하고 있다.²⁾

한편, 『장흥동학농민혁명사』가 간행된 뒤에 찾아낸 자료에는 魏啓政의 문집 『復齋集』에 실린 관련기록과, 宋鎮鳳의 문집 『思復齋集』에 실린 관련기록이 있다. 장흥 유생 위계민(1855-1923)은 『六有集』을 남긴 六有 白永直(1841-1912)의 매제이다. 『복재집』 卷5에 실린 「五衛將 申公行略」은 1894년 12월 康津 兵營 五衛將으로 있으면서 농민군을 토벌한 申某의 행략으로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기록이다. 『복재집』 원본은 장흥군 有治面 丹山에 살고 있는 손자 위종문씨가 소장하고 있다. 『사복재집』은 같은 장흥 출신 유생 송진봉(1840-1898)의 문집이다. 卷五에 실린 「宗人鍾湑甲午事狀」이 갑오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이다. 강진 읍천면 桂山里에 세거하던 宋鍾湑(당시 28세)이 갑오 12월 강진 병영이 농민군에게 공격을 받아 위태로울 때 그의 형 鍾연과 함께 수성군에 가담하였다. 종림은 이 때 형 종연이 농민군의 공격으로 해를 입게 되자 농민군의 공격을 막다가 죽었다. 이러한 사연을 듣고 송진봉이 그 내력을 기록한 것이다.

3. 主要人物

장흥지방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한 대접주급 지도자로서 장흥 출신이거나 장흥 출신으로생각되는 인물로는 具教轍, 李芳彦, 李仕京, 李仁煥 등이 있다. 金方瑞, 金秀根, 趙鍾純 등도 대접주급 인물이지만 김방서는 金溝, 김수근은 和順, 조종순은 綾州 출신으로 장

2) 영회당관련 자료의 성격에 대하여는 필자가 1992년 9월 26일 韓國古文書學會에서 발표한 논문 「1894년 長興 東學農民戰爭關係 古文書의 檢討」 참조.

흥지방 농민혁명에 가담하였다. 접주급 지도자로는 金學三, 朴采鉉, 朴致京, 白仁命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장흥 출신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장흥 출신 대접주 및 접주급 인물과 장흥 출신은 아니나 장흥에서 활약한 인물까지 포함하여 그들의 출신지, 신분, 농민혁명 당시 활동상, 갑오년 이후의 행적 등 관련사항을 자료에 의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 具敎轍

熊峙面 출신으로 생각되는 대접주급 지도자. 웅치는 현재 보성군 웅치면을 말하지만 1894년 당시 웅치는 장흥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구교철의 출신지나 인적사항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단지 1894년 당시 활동만이 알려지고 있다. 그는 갑오 6월경 웅치를 근거지로 하여 폐정개혁활동을 시작하였으며, 9월에는 신임부사 박헌양의 귀순 권고를 받았으나 거절하였다. 12월 4일부터 시작된 장흥 강진지방 전투에서 웅치대접주로 활약하였다. 갑오년 이후의 행적은 잘 밝혀지지 않고 있다. (문재국소장 동학문서, 오하기문)

3) 金方瑞

현재 전북에 속한 金溝 출신의 대접주급 지도자. 동학농민군의 9월 기포후 전봉준 진영에 가담하여 논산까지 진격하였다가 장흥 일대 수성군의 공세와 탄압으로 위기에 처한 장흥지방 동학농민군을 돕기 위하여 파견되었다. 갑오 11월 21일 장흥 외곽의 黑石장터에 이르러 부근의 농민군과 합세하여 12월의 장흥 강진 전투에 참가하였다. 이방언 등과 같이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으나, 1895년 3월 31일 무죄로 석방되었다. 석방 후 금구로 내려왔으나 전라감사 이도재의 체포령에 의해 체포되어 전주에서 처형당하였다. (동학사, 김낙철역사, 문재국소장 동학문서, 일사)

3) 金秀根

和順 출신의 대접주급 지도자. 1894년 12월 1일 社倉에서 장흥 동학농민군과 합세하여 장흥 강진 지방 전투에 참가하였다. (문재국소장 동학문서)

4) 李芳彦

남면 묵촌 출신의 대접주급 지도자. 본관은 仁川. 重吉의 아들. 方彦 혹은 邦彦이라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장흥 유생 金漢燮와 함께 任憲晦 문하에서 동문수학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891년 동학에 입교하여 1893년 보은취회에 참가하였다. 갑오 4월 황룡촌 전투에 참가하여 장태를 제작 사용함으로써 동학농민군이 승리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1894년 5월 全州和約후 장흥으로 돌아와 폐정개혁활동을 벌였으며, 이때 김한섭으로부터 귀순할 것을 권고받았으나 거절하였다. 갑오년 1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장흥 강진 지방 전투에서 크게 활약하였으나, 12월 15일 석대들 전투에서 패배하여 은신하였다가 12월 25일 토벌군에 체포당하였다.³⁾ 서울로 압송되어 전봉준 등과 함께 재판관을 받았으나 무죄로 석방되었다. 전해지는 일화에 의하면, 이 때 대원군의 도움으로 석방되었다고 한다. 석방후 전 보성군수 柳遠奎의 도움으로 보성 회천면에 숨어

3) 「巡撫先鋒陣膽錄」 1894년 12월 29일조, (『東學亂記錄』上, 646쪽)

있다. 전라감사 李道宰의 체포령에 의해 아들 聖浩와 함께 다시 체포되어 1895년 4월 27일 장흥 벽사역에서 외아들과 함께 처형당하였다.⁴⁾ (동학사, 김낙철역사, 오남집, 오하기문, 동학란기록, 문재국소장 동학문서, 일사)

5) 李仕京

龍溪 瓦里(지와몰) 출신의 대접주급 지도자. 지와몰은 현재의 부산면 용반리를 말함. 본관은 仁川. 일찍이 동학에 입교하여 접주를 지낸 부친 浩仁의 뒤를 이어 대접주가 되었다. 갑오 6월경 그의 근거지인 지와몰 인근의 자라번지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 개혁활동을 벌였으며, 9월경에는 부사 박헌양으로부터 귀순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하였다. 갑오년 12월 장흥 강진 전투에 참가하여 활약하였다. 12월 15일 石臺들전투에서 패한 뒤 용반리 騎驛山에 은신하였다가 이듬해 1월 15일에 체포되어 장흥 벽사역에서 처형당하였다. 이름을 士京 혹은 士敬이라 쓴 기록도 있다. (문재국소장 동학문서, 오하기문)

5) 李仁煥

大興 출신의 대접주급 지도자. 대흥은 현재의 大德邑을 말함. 본관은 仁川. 1891년 李芳彦 文南澤등과 함께 동학에 입교함. 장흥부사 박헌양이 동학교도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자 갑오 11월 25일 대흥에서 기포하여 古邑(현 관산읍)과 南面(현 용산면), 會寧(현 보성군 회천면) 일대를 장악하였다. 12월 1일에 사창에서 화순 능주 금구 나주 광주 등지에서 내려온 동학농민군과 합세하여 12월 3일에는 장흥읍성과 벽사역 외곽지대까지 진출하였다. 12월 4일에는 벽사역을 점령 불태우고 5일에는 장흥부를 점령하였으며, 7일에는 강진현, 10일에는 병영마저 점령하였다. 12월 15일 石大戰에서 토벌군에 패하고, 다시 古邑 玉山里(현 관산읍 옥당리)에서 최후 항전을 벌이다 패하여 天冠山 석굴에 은신해 있다가 1895년 1월 21일에 체포되었다. 나주 진영으로 압송되어 3월 27일에 56세로 처형당하였다. (문재국소장 동학문서, 오하기문, 천도교회월보, 동학란기록 상·하)

6) 文南澤

有治 출신의 대접주급 지도자. 1891년 동학에 입교함. 이인환과 같이 활동한 인물로 짐작되나 관련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천도교회월보)

7) 趙鍾純(종순)

綾州 출신의 대접주급 지도자. 1894년 12월 1일 장흥 社倉에서 장흥 동학농민군과 합세하여 12월 4일부터 전개된 장흥 강진 일대 전투에 참가하였다. (문재국소장 동학문서, 동학란기록 하)

4) 지금까지 이방언이 처형된 장소는 장흥 장대, 처형일자는 1895년 4월 25일로 알려졌으나 아래에 인용한 강진유생 박기현의 일기인 「日史」 1895년 4월 27일 일기내용에 의하여 처형장소와 처형일자를 수정한다.

長興邪魁李邦言 附於十大臣所蒙放 乘輜楊楊下來 碧沙捉而斬之 城村之民齊來 亂斫剖腹解體云(「日史」 1895年 4月 27日條)

8) 金學三

古邑(관산) 출신의 접주급 지도자. 본관은 金海. 이방언 대접주와는 인척간이었다. 12월 17일 고읍 옥산리 전투에서 패한 후 은신해 있다가 1894년 12월 25일 체포되어 이듬해 1월 13일 벽사역에서 처형당하였다. 冠山邑 聖山里에 묘소가 있다(천도교회월보, 천도교회사초고, 동학란기록 하)

9) 南道均

강진 출신의 접주급 지도자. 1894년 12월 27일 체포되어 일본군에 의해 처형당함.
(동학란기록 상)

10) 白仁命

龍溪(현재의 부산면 용반리) 출신의 접주급 지도자. 관련자료에는 寅明 혹은 仁明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함. 1895년 1월 25일 벽사역에서 祖·父와 함께 3대가 처형당함.(오하기문, 천도교회월보, 천도교회사초고)

11) 尹世煥

강진 출신의 접주. 1894년 12월 27일 강진에서 체포되어 처형당함.(동학란기록 상, 동학사)

12) 尹世顯

강진 大口 출신의 접주급 지도자. 1894년 4월 제 1차봉기에 가담하였으며, 7월에 강진으로 돌아와 폐정개혁활동을 벌였다. 12월의 장흥 강진 전투에도 참가하였다. 갑오년 이후에도 살아남아 활동하다 1933년에 죽었다.(천도교회월보)

13) 李召史

1894년 12월 5일 동학농민군이 장흥부를 점령할 때 馬上에서 지휘하였다는 여자 농민군지도자. 일찌기 꿈속에 天神이 나타나 道를 받았다고 알려져 동학교도들이 모두 존경하였다고 한다. 장흥싸움(장흥 농민군 최후의 전투인 석대전을 말하는 듯함; 인용자 주)에서 패하여 체포되었다.⁵⁾

4. 展開過程과 主要戰鬪

1894년 11월을 전후하여 강진 병영과 장흥부를 중심으로 하는 반농민군(=守城軍) 측의 장흥 일대 동학농민군에 대한 탄압과 공세가 강화되어감에 따라 동학농민군측 또한 수성군측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전력 강화를 위해 장흥부 외곽지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軍勢강화 활동에 들어갔다. 물론 장흥 동학농민군의 주력군은 장흥 출신의 농민군지도자들이 지도하고 있던 接에 소속된 동학 교도들이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장흥 지방 동학 포교는 남상면 묵촌, 용계면 자라번지, 웅치면 등을 중심으로 포교되었고 갑오년 당시에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민군이 주력을 이룬다. 그러나 이들 지역 외

5) 「명치편년사의 동학관계기사」, (『신인간』 449, 1987. 5), 67쪽.

에도 장흥 지방에서 발굴된 동학관련 자료를 분석해보면, 古邑(현 冠山邑) · 大興(현 大德邑) 등지의 동학 교세 또한 상당하였음이 발견된다. 따라서 갑오년 11월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러 장흥 동학농민군의 주력은 남상면 묵촌의 李芳彦 대접주가 이끄는 세력, 자라번지의 李士京 대접주가 이끄는 세력, 웅치를 중심으로 한 具教轡 대접주가 이끄는 세력, 대흥을 중심으로 한 李仁煥 대접주가 이끄는 세력, 고읍을 중심으로 金學三(金化三)대접주가 이끄는 세력들이 장흥 농민군의 주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방언 이사경 구교철 이인환 김학삼 등이 이끄는 장흥 동학농민군은 갑오 9월 13일 전봉준군이 삼례에서 기포하여 전열을 정비한 다음 일본군을 몰아 내기 위해 서울로 진격을 개시하던 9월말경 바로 기포한 것이 아니라 전봉준군의 복상에 따라 그 힘의 공백을 이용하여 장흥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공세를 가하던 강진 병영과 장흥부의 수성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포하게 되며, 그 시점 역시 10~11월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장흥 동학농민군은 제 2차 기포시 삼례의 농민군 본영에 곧바로 참여했던 것이 아니었다. 장흥농민군은 장흥을 벗어나 복상 대열에 합류할 처지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물론 병영과 장흥부를 거점으로 한 수성군측의 공세에 장흥 일대 농민군측이 대응해야 했기 때문이다.

장흥 지방 동학농민군측이 제 2차 기포 직후 전봉준군의 복상에 따라 상당한 탄압과 희생을 겪었던 사실은 『동학사』의 내용과 장흥 유생들이 남긴 자료들에 상세하게 앞 드러나 있다. 2차 기포후 장흥 지방 동학농민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은 마침내 농민군 본영에도 보고되었으며, 장흥 동학농민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봉준군 소속 부대가 파견되기에 이른다. 금구대접주 金邦瑞가 이끄는 지원부대는 10월 초순경 논산을 출발하여 11월 초순경에는 장흥 외곽인 黑石장터 까지 진출한 것이 확실하다.

11월 7일

(전략) 黑石장터(현 장흥군 장평면 봉림리 흑석마을. 흑석 마을은 광주 · 화순 · 능주 방향으로부터 내려오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교통의 요지로서 동남방향으로 10리 정도 가면 社倉에 이르며, 서남방향으로 가면 유치 빈재와 용계 자라번지에 이르게 된다.)에 이르니 紅大旗 2개 白大旗 1개가 있고 그곳(=농민군진영; 인용자주)으로부터 간간이 포성이 들리며 문밖에는 말 6필이 묶여져 있으며, 그 무리들이 혹은 수 십명 혹은 7~8명씩 마을에 흩어져 있었다. 사람들로부터 동도들이 지난 달(=10월; 인용자주)그믐 무렵 光州 南平 寶城 長興 金求(金溝의 誤記; 인용자주) 綾州 등을 출발하여 그 무리들이 능주목을 짓밟고 오늘에 이르러 흩어져 오는 길이며 장차 長興으로 쳐들어가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

위의 내용은 강진유생 박기현이 직접 견문한 바를 적은 것으로서 금구의 동학농민군을 비롯한 장흥 이외의 농민군들이 10월말경 자기 고을을 떠나 11월 7일에 장흥 흑석장터까지 진출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위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장흥 농민군과 금구 농민군외에도 광주 남평 보성 능주 등의 농민군까지 합류하고 있기에 이른다.

이들 인접 고을 농민군들의 합류과정을 잠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전봉준이 이끄는 주력군은 9월 13일 삼례에서 기포한 다음 9월말까지 삼례에 머물며 복상을 위한 전력의 정비와 군세의 강화에 주력한다. 그리하여 그는 광주 · 나주에 머물러 있는 손화중 최경선 등에게 복상 대열에 합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남원에 웅거하고 있는 김개남에게도 역시 편지를 보내 합류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손화중 ·

최경선 등은 일본군이 서해안으로 상륙할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그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봉준에게 합류하지 못했으며, 김개남 역시 남원에 계속 웅거하며 합류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손화중 최경선군이 합류하지 못한 원인중에는 일본군의 상륙설외에 광주·나주목 수성군의 농민군측에 대한 공세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특히 나주는 유일하게 갑오 4월이래 9개월간 수성에 성공한 고을로서 나주 접주 吳權善이 이끄는 농민군과 전봉준이 파견한 최경선군이 합세하여 수 차례의 공격을 가하여 점령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실패하고 만 고을이었다. 그러므로 광주 나주 수성군의 공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화중 최경선군의 북상 대열에의 합류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만일 합류한다면 광주 나주의 수성군으로 하여금 농민군의 후방을 기습하도록 길을 내주는 격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봉준군의 북상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일본군의 상륙과 광주 나주 수성군측의 공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주 나주 일대에 머물러 있던 손화중 최경선 군은 11월에 접어들어 수세에 처하기에 이른다. 나주목을 공략하기 위한 공격에서 수성군측의 방어와 역습에 패퇴한 것이 주원인이었다. 광주 나주 일대 농민군들의 동향을 다음의 자료를 통해 보기로 하자.

<사료-C>

10월 21일 光州 점산에 적도들이 締結하여 거괴 孫化中이 만여명을 인솔하고 아침 저녁사이에 나주를 도륙하겠다고 하니 그 날로 위태로운 말이 전해져 사람들 마음이 놀래고 위태로와 성안이 물끓듯하였다.

<사료-D>

20일(=11월 20일;인용자주)에 발송된 나주 공형의 보고문에 “본 읍은 저들의 무리수 만에 의해 포위되었으며 형세가 대단히 급박하여 성의 함락이 조석사이로 박두하였읍니다”라고 급히 아뢰고 있사오며

<사료-E>

본 고을(=광주;인용자주)에서는 지난 달(=11월;인용자주) 27일 동도 수 만명이 성중에 돌입하여 혹은 공해에 머물고 혹은 민가에 거처하였읍니다. 이 달 초 1일 巳時경 괴수 孫化仲은 무리를 해산하고 물러갔으며, 崔京宣은 귀화하겠다는 방을 게시하고 물러갔읍니다

<사료-F>

12월 초 3일 南平 수리 丁南洪이 급히 아뢰기를 “적괴 崔京先이 곧바로 본군을 함락하여 官家(남평군수)는 인부와 공전을 탈취당하고 어깨에 총을 맞아 생사가 머리끝에 달려 있어 특별히 군대를 발하여 적을 토벌해주소서” 하는지라 인하여 도통장 鄭錫珍 도위장 孫商文 부통장 金在煥 중군장 金聲振 참모 朴在九에게 명하여 정예포군 3백을 거느리게 하고 의거통령 朴薰陽이 민병을 거느리고 합세하여 초 4일에 남평 경계에 이르르니 (중략) 적이 이미 멀리서 바라보고 놀라 방향을 바꿔 능주 땅으로 도망하였다

위의 <사료-C·D·E·F>에 의하면 광주 나주 일대 농민군은 10월 21일 이후부터 11월 27일 사이에 광주 나주 일대에서 머물러 있다가 27일 광주를 점령한 다음 12월 1일에 광주에서 해산하고 있다. 해산의 이유는 불분명하나 그간 광주나주 일대 수성군측의 공세에 오래도록 시달려왔다는 점과 남하해오는 경군 및 일본군의 농민군에 대한 전면적인 대탄압과 공세에 맞설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2월 1일 광주에서 해산한 최경선은 3일에 이웃한 남평을 점령하였고 4일 나주 수성군이 대거 출동하자 능주방향으로 퇴각하고 있다. 4일 남평에서 퇴각한 농민군들이 바로 능주를 경유 장흥 社倉으로 남하하여 장흥 농민군들과 합류하게 된다. 결국 광주 나주 일대에서 오래도록 수성군들과 대치하며 공방전을 벌였던 농민군들이 대규모의 토벌군의 남하를 피하여 장흥 지방으로 남하하여 합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광주 나주에서 퇴각한 농민군의 합류에 따라 장흥 동학농민군의 군세는 대폭 강화된다.

11월부터 12월초를 전후하여 장흥 인근으로 합류하는 농민군들 중에는 광주 나주 농민군외에도 南平 寶城 綾州 和順 등지의 농민군도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타난다.

<사료- G>

사람들로부터 동도들이 지난 달(=10월; 인용자주)그믐 무렵 光州 南平 寶城 長興 金求(金溝의 誤記; 인용자주) 綾州 등을 출발하여 그 무리들이 능주목을 짓밟고 오늘에 이르러 흩어져 오는 길이며 장차 長興으로 쳐들어가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

<사료- H>

12월 초 1일 적도들이 보성으로부터와 社倉등지에 주둔하였다. 大接은 만여명이요 小接은 2~3천명으로서 金溝의 거괴 金方瑞 和順 괴수 金秀根 綾州거괴 趙鍾純 등이 모두 농민군을 거느리고 來到하였다.

위의 <사료 -G·H>를 통해서 보면 12월 1일경 장흥부 외곽인 社倉에는 금구 화순 능주 등의 농민군이 합세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장흥 지방농민군을 주력으로 한 금구 광주 나주 남평 화순 능주 보성 등지의 농민군은 12월 1일경 사창등지에 대규모로 집결하여 장흥부를 공략할 준비를 갖추었던 것이다. 이들 연합 농민군의 규모는 대체로 최소 1만명에서 최대 3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군세였다.

12월 1일 사창에 집결한 농민군의 대공세는 12월 3일부터 가시화된다. 12월초 동학농민군이 벽사역, 장흥부, 강진현, 강진병영을 차례로 점령하게 되는 대공세의 과정을 우선 간략히 날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2월 1일 금구 광주 나주 남평 화순 능주 장흥 보성의 농민군 장흥 사창에 집결
(문재국씨 소장 동학문서)

12월 3일 농민군 장흥부와 벽사역 인근의 平化 松亭嶺·巾山後嶺·碧沙後坪·杏園 前坪까지 진출(위의 자료)

12월 4일 辰時(오전 8시)경 농민군 벽사역 점령(『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상, 576면)

12월 5일 새벽 농민군 장흥부 점령, 장흥 부사 박헌양이하 수성장졸 96인 희생 (위의 책, 578면)

12월 6일 오후 2시경 농민군 장흥 강진 경계지점에 위치한 舍人店까지 진출(위의 책, 583면)

12월 7일 10시경 농민군 강진현 점령 현감 이규하는 나주로 도망하고 보암면 도통 장 金漢燮 희생당함(위의 책, 585면)

12월 10일 농민군 강진 병영 점령 兵使 徐丙懋는 도망하고 虞候 鄭達贊 前都正 朴昌鉉 軍器官 金斗治(克敬) 희생당함(황현, 『오하기문』 제 삼필 갑오 12월 10일조; 김병취, 『연파집』 하)

이상의 내용에 의하면, 장흥 연합농민군은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파죽지세로 빛나는 승리를 거두며 벽사역 장흥부 강진현 강진병영을 점령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들을 다시 碧沙驛·長寧城전투, 康津縣·兵營전투, 石臺들전투로 세분된다.

1) 碧沙驛·長寧城전투

12월 1일 社倉에 집결한 농민군들은 12월 3일 벽사역과 장흥부 인근까지 진출한다. 이들 농민군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금구 광주 나주 남평 화순 능주 보성 등지의 농민군까지 합세하고 있었으며 장흥 출신의 이방언 이인환 구교철 이사경등과 금구의 김방서 화순의 김수근 능주의 조종순 등이 이끄는 1만명이상의 대병력이었다. 다음에 인용한 내용이 그 구체적 사실들이다.

12월 초 1일 적도들이 보성으로부터 와 社倉등지에 주둔하였다. 大接은 만여명이요 小接은 2~3천명으로서 金溝의 거괴 金方瑞 和順 괴수 金秀根 綾州거괴 趙鍾純 등이 모두 농민군을 거느리고 來到하였다

초 3일 많은 적들이 곧바로 성바깥에 이르렀다. 李方彦군은 平化松亭嶺에, 李仁煥과 具教轍군은 巾山後嶺에, 金方瑞등의 농민군은 碧沙後坪에, 李士敬등의 농민군은 杏園前坪에 주둔하였다.

이처럼 장흥 인근 지방의 모든 농민군이 집결하여 1만명이상의 대병력으로 장흥부와 벽사역을 사면에서 포위하자 11월 29~30일까지 벽사역을 중심으로 농민군을 체포 처형하는데 주력했던 벽사역 및 장흥부의 수성군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벽사역 찰방 金日遠은 장흥부 성안으로 가족들을 대동하여 피신해버렸고 수성군 역시 벽사역으로부터 장흥부 안으로 철수하였으며 대규모의 농민군 병력에 위협을 느낀 수성군측에서는 나주초토영으로 급히 구원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농민군들은 12월 4일 아침 8시경 텅빈 벽사역을 점령하고 각 공해와 역졸들이 살았던 민가를 모두 불태워버렸다. 이리하여 갑오 3월 전장흥부사 이용태와 벽사역 역졸 8백여명이 고부에서 동학교도와 고부 민란 주모자들에 자행했던 가혹한 행악에 대한 응징이 사실상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 농민군들에게 이렇다할 만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너무도 허무하게 벽사역이 불타버리자 지척에 있는 장흥부 성안의 수성군은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벽사역 점령으로 인하여 長興府는 큰 혼란이 일어났다.

4일 적이 화포를 쏘아 벽사역의 公해와 民舍를 불태워 모두 잿더미로 만들었다. 불꽃과 연기가 하늘을 온통 덮고 들에 가득찼다. 인민들은 혼비백산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위의 내용에는 동요하는 수성군과 장흥부내 인민들의 동향이 묘사되어 있다. 벽사역이 무너짐에 따라 충격을 받은 장흥부사 박헌양은 사태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수성장졸과 부내 백성들을 독려하며 농민군과의 일전을 각오하고 있었다. 한편 벽사역 찰방 김일원은 급히 병영으로 구원을 요청하러 떠났다. 장흥부성은 예로부터 長寧城이라고도 불려왔다. 장녕성은 주변 산을 이용하여 쌓은 包谷式山城으로서 동쪽만이 평지이며 그 외 삼면은 산으로 둘러 쌓여 있다. 특히 남쪽 방향으로는 南山이 솟아 있는데 남산은 탐진천 쪽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성벽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문쪽 평지 앞에는 탐진천이 흐르고 있어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였다. 부사 박헌양은 이러한 장녕성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만여명 이상이나 되는 대병력인 농민군측의 공격을 방어해 보고자 했는 지, 벽사역이 불타버려도 피신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벽사역으로부터 철수한 수성군과 부내의 장졸들을 모아 독려하며 농민군측의 공격을 저지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장흥부가 함락된 후인 7일과 10일 강진현과 병영이 잇달아 함락될 당시 강진현감 李奎夏와 병사 徐丙戀가 도망해버린 태도와는 사뭇 다른 자세였다. 후일 장흥 유생들과 松沙 奇宇萬 梅泉 黃玟 등이 모두 그의 최후를 애석해하는 조시를 남긴 것도 죽음에 임박해서도 오히려 官長의 책임을 다했던 그의 죽음을 애석히 여겼기 때문이었다. 장녕성에 대한 농민군측의 공격은 12월 5일 새벽을 기하여 개시되었다.

다음 날 새벽 候(=부사;인용자주)가 다시 동문의 문루에 올라 적진을 바라보니 한 방의 포소리가 들리자 적들이 곧바로 北門을 향해 달려들고 나머지 적들은 사면으로 난입하니 온 성안이 불길에 휩싸이였다. (중략) 관군이 부사를 호위하고 동헌으로 향하니 적들이 뒤를 쫓아와 작탄을 하여 소매자락을 붙잡아 끌며 인부를 찾았다. 候가 우뚝서서 조금도 굽힘이 없이 성난 목소리로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왕명을 받들어 印符가 나에게 있거늘 너희들이 어찌 감히 빼앗으려 하는가?”라고 하며 꾸짖는 소리가 입에서 그치지 아니하였다. 적들이 협박하여 동문 밖 시장 부근에 이르러 어지럽게 포를 쏘아대며 무수히 위협하니 후가 얼굴빛을 변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앉아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니 곧 12월 5일이였다.

농민군들은 대포소리를 신호로 주력 부대는 북문(현 장흥읍 연산리 소재)을 먼저 공격하였고 나머지 농민군들 역시 남문 동문등으로 공격해 들어가 일시에 함락해 버렸다. 박헌양이하 수성장졸은 이렇다할 만한 저항도 못한 채 순식간에 전령당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사면으로 포위된 부사 박헌양을 비롯한 수성장졸 96명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희생당하고 말았다. 희생당한 장졸들을 보면, 부사 朴憲陽 기실 朴永壽 수성별장 任璫南 수성통장 周斗玉 수성호위장 周烈佑 수성천총 金昌祚 벽사 찰방 金日遠의 아들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찰방 김일원은 병영으로 구원을 요청하러 가고 없어서 화를 면하였다. 장녕성의 함락으로 인하여 96인의 수성장졸외에 부민 4~5백명도 역시 죽음을 당하였다. 동헌과 그에 딸린 각 공해들이 모두 불에 탄 것은 물론 남문 동문 북문 등도 이때 소실되어 지금은 그 門址들만 남아 있다.

농민군들이 장녕성마저 점령해버렸다는 소식은 미처 장녕성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인근의 농민군들을 고무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그리하여 장녕성 전투이후 농민군의 군세

는 처음 만여명에서 3만명의 규모로 증가되기에 이른다. 여기에는 康津 海南 靈岩 方面에서 밀려온 농민군과 順天 寶城 方面에서 밀려온 농민군마저 합세하여 대규모의 군세를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리하여 이들 농민군들은 강진·병영·영암 등을 점령하고 나주를 향해 진격하려는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장흥 일대에서 농민군이 벽사역을 불사르고 이어 장흥부마저 함락해버렸다는 소식은 이웃한 강진 병영을 위시하여 나주 초토영, 그리고 경군을 이끌고 남하해오는 순무영과 선봉진에도 곧바로 전해졌다. 그리하여 전주 장성 등을 거쳐 남하해오던 경군과 일본군은 장흥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병력을 분산 여러 방향으로 장흥을 향해 남하해 오기에 이르렀다. 右先鋒將 李斗璜군은 순천 방향으로부터, 左先鋒將 李圭泰군은 나주 영암 방향으로부터, 그리고 나주의 일본군은 三路로 分陣하여 1대는 영암을 거쳐 장흥으로, 다른 1대는 능주를 거쳐 장흥으로 또다른 1대는 장흥으로 직행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갑오 12월 15일 장흥 농민군과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경군 및 일본군과의 전면 항쟁의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2) 康津縣 · 兵營 전투

12월 5일 장흥부를 점령한 농민군은 예정대로 강진현과 강진 병영의 공략에 나섰다. 강진현은 집강소 설치기에 농민군의 집강소 설치를 강력히 거부하였던 고장으로서 특히 전봉준군이 삼례에서 기포하여 서울을 향해 북상할 무렵인 10월 1일에는 이웃한 강진 병영에 설치된 농민군의 도소(=집강소; 필자주)를 철폐하고 수성소를 설치하는 한편, 수천 명의 民軍(농민군을 진압 토벌하기 위해 유생들 중심으로 조직된 민병)을 모집 병영 장대에서 훈련시키기도 하였다. 뿐만아니라 10월초 수성소를 설치한 이후부터 12월초까지 민군을 중심으로 다수의 농민군을 체포하여 포살하는 등 농민군 탄압의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 강진현과 병영이 중심이 되어 벌인 농민군에 대한 탄압의 실상은 박기현의 『일사』와 기타 관련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 9월 16일 강진현 吏校들이 강진현에 동학 도소 설치를 막고 수성을 함(박기현, 『일사』)
- 10월 1일 강진 병영에 설치된 동학도소(=집강소; 인용자주)를 철폐하고 수성소를 설치(박기현, 『일사』)
- 10월 18일 강진 병영에 설치된 수성소에서 수 천명의 민군을 징발하여 병영 장대에서 훈련을 실시함(위의 책)
- 10월 29일 강진현감 강진 경내 농민군 진압을 위해 순무선봉진에 병력 파견 요청 함(『순무선봉진등록』 갑오 11월 13일조)
- 11월 3일 강진 병영의 무사와 吏奴들이 모여 병영에 살고 있는 동학 교도의 집을 부수고 동학교도 先達 金應日을 포살함(박기현, 『일사』)
- 11월 6일 강진 병영군이 해남 別鎭驛에서 농민군 5명을 체포하고 대완포 1자루 조총 20자루 창 수십개를 노획하여 돌아옴(위의 책)
- 11월 29일 장흥에 출동한 병영군이 농민군 3명을 참살하고 1명을 병영으로 이송(박기현, 일사)
- 12월 1일 강진 도총장 농민군 3명 압송도중 1명 도주(위의 책)
- 12월 2일 강진 도총장 농민군 20여명을 체포하고 화약 총창 몽둥이와 牛 등을 압수하여 돌아옴(위의 책)

이상에서 살펴보면 강진현의 수성군과 강진 병영군이 10월초부터 12월초에 이르기까지 인근의 농민군에 대한 진압에 적극 나서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강진현 수성군과 병영군의 강력한 진압활동은 물론 강진 병영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강진 병영과 병영군은 강진 해남 장흥 일대 농민군들에게는 가장 위협스런 존재였으며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장흥부를 점령한 농민군은 그동안 장흥 강진 일대 농민군을 가장 크게 위협해온 강진현과 병영의 공략에 나섰던 것이다.

장흥을 점령한 농민군들이 그 기수를 강진으로 돌린 것은 12월 6일이었다. 그리하여 6일 巳時(오전 10시)경 벽사역 뒷산에 머물러 있던 농민군은 未時(오후 2시)경에는 장흥과 강진의 경계 지점인 舍人店(현 장흥읍 松岩里) 앞 들판까지 진출하였으며 7일 辰時(오전 8시)경에는 강진현을 포위하였다. 이때 강진현감 李奎夏는 구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나주로 피해버리고 없었으며 寶巖面(현 강진군 道巖面) 도통장인 유생 金漢燮만이 그를 따르던 유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민보군을 이끌고 수성을 하고 있었다. 김한섭은 원래 장흥 홍릉동 출신으로 鼓山 任憲晦의 문인이었으며 장흥 동학접주 이방언과는 동문수학의 사이이기도 하였다. 처음 그의 친구인 방언이 동학에 입도하자 한섭은 여러 차례 편지를 써서 효유코자 하였으나 방언이 끝내 불응하자 절교하고 고을 사람들에게 '적(동학)에게 경고하여 보이는 글'을 지어 깨우쳤다고 전한다. 아뭏든 어제의 친구였던 이방언과 김한섭은 이제 적이 되어 운명적으로 조우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강진 수성군으로서의 수 만명이나 되는 농민군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구원을 요청하러 간 현감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웃한 병영이나 해남 영암 등지의 수령들은 자기 고을의 방어에만 급급할 따름이었던 것이다. 중과부적이던 수성군은 노도처럼 밀려드는 농민군에 대항하려 하였지만 전세는 이미 기울어져 버렸다. 제자 수십 명과 함께 西門을 지키고 있던 김한섭이 대포를 쏘며 대항하고자 하였으나 농민군들은 동문과 남문을 깨뜨리고 서문으로 밀려들어 왔다. 그리하여 외로이 수성을 하던 金漢燮는 弟子 金亨善·士人 金龍鉉·座首 尹鍾南·縣吏 金鳳憲 黃鍾憲 등과 함께 농민군에 의해 희생당하였고 이로써 농민군들은 강진현마저 손쉽게 점령하였다. 농민군들은 무인지경인 강진현을 불태우고 농민군을 탄압하는데 앞장서온 수성군들을 모두 잡아 죽임으로써 그동안 일방적으로 당해온 한을 일시적으로나마 풀었다.

강진을 점령한 농민군은 병영을 공략하기 위하여 방향을 돌렸다. 그리하여 12월 9일 농민군은 병영과 불과 1~20리 떨어진 곳에 수 천명씩 나뉘어 주둔하고 있었다. 이때 병영에서는 兵使 徐丙懋와 虞候 鄭達贊이 농민군을 방어할 계책에 대하여 논란을 벌이고 있었다. 우후 정규찬은 강진에서 병영으로 넘어 들어오는 고개인 南關을 막기만 하면 농민군의 진출을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병사 서병무는 농민군의 숫자와 장흥 강진의 함락 소식에 이미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군을 막아내자는 우후의 의견에 소극적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농민군의 공격이 시작되기전 印符를 품고 영암을 거쳐 나주초토영으로 도망해버렸다. 병영안에는 불과 천여명의 군사와 우후 정규찬 軍器官(監官) 金斗洽(克敬)·前都正 朴昌鉉·軍校 白宗鎭·守城都摠 府吏 尹衡殷 등만이 외롭게 버티고 있을 따름이었다. 병영군은 농민군의 위세에 밀려 감히 성밖으로 출격할 엄두마저 내지 못하고 있었고 다만 城의 四面에 목책을 둘러치고 있을 뿐이었다. 9일밤 이인환이 이끄는 농민군은 병영에서 불과 10여리 떨어진 君子村(현 강진군 鵠川面 君子里)까지 진출하여 유진하고 있었다. 병영내에서는 전도정 박창현이 수성도총 윤형은에게 포군 3백을 인솔하여 역습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윤형은의 불응으로 이

역시 불발에 그치고 말아 병영군은 앉아서 농민군의 공격을 기다려야만 하였다. 10일 새벽 농민군은 드디어 네 방향으로 나누어 진격해 와 병영 뒤편 세 봉우리를 점령하고 일제히 포를 쏘아 댔다. 농민군이 목책에 불을 지르고 기어오르고 병사가 피신해버렸다는 소식이 들리자 병영군은 무너져버렸다. 우후 정규찬 전도정 박창현 윤기관 김두흠 등이 분전하였지만 허사였다. 우후 정규찬은 농민군 진영으로 돌진해 들어가다, 전도정 박창현은 농민군에게 대포를 쏘며 저항하다가, 김두흠은 화약고를 지키다가 화약을 끌어앉고 죽었다. 병영내의 각 공해와 민가들이 모두 불타고 수성을 하던 수백 명의 군민 역시 죽었다. 농민군측의 희생도 상당하였다. 이리하여 병영마저도 농민군의 수중에 들어왔다. 한편 병영이 농민군의 수중에 함락되던 10일, 나주에 머물던 일본군은三路로 나누어 장흥 방향으로 급히 내려오고 있었으며 이두황군은 순천쪽으로부터, 이규태군은 영암방향으로부터 병영함락 소식을 접하고 급히 장흥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규태군은 농민군들이 병영으로부터 철수하여 장흥부 남문근처에 머물던 12일야 강진을 거쳐 장흥으로 들어오게 되며 일본군은 15일, 이두황군은 20일야 장흥으로 들어오게 된다.

3) 石臺들전투

병영마저 점령해버린 농민군은 영암으로 진출하려던 당초의 진로를 바꾸어 다시 장흥으로 돌아왔다. 영암에는 이미 경군이 남하하여 전라도 서남부 지방 농민군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10일 병영을 점령한 농민군이 장흥으로 귀환하여 남문밖과 모정 뒷산 등지에 주둔하게 된 것은 12일이었다. 12일에는 마침내 농민군 토벌 임무를 띠고 내려온 경군의 선발대 역시 장흥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리하여 12일부터 경군을 비롯한 일본군 민보군등 연합토벌군대에 맞서 장흥 동학농민군들이 최후 항전을 벌이게 되는 운명의 대회전이 서서히 개시되고 있었다. 경군과 농민군의 소규모 접전은 12일부터 시작된다. 다음의 내용을 보자.

이 때 적들이 3~4일간에 또 강진과 병영을 함락하고 12일에 다시 本府로 돌아와 남문밖과 건산 모정등에 주둔하였다. 이날 召募官 白樂中이 경군을 거느리고 보성으로부터 들어왔다. 저녁 무렵 곧바로 먼저 모정등의 적을 격파하고 다음날 새벽 또 남문밖의 적을 격파하였다.

이 달 11일 나주로부터 파견된 教長 黃水玉의 보고내에 “병정 30명을 거느리고 농주에 도착하여 駐宿하고 12일 五更(실제로는 13일 새벽 4시경) 장흥에 도착하여 주숙하고 13일 未明前에 적의 형세를 탐지한즉 본부 남문밖에 적도 수천명이 주둔하고 있으므로 일병과 통위영병 30명이 합력하여 진격하니 수합도 채 겨루기 전에 적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기에 승세를 타 추격하여 20여명을 포살하였으며 나머지 무리들은 죽기로써 달아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인하여 되돌아와 주숙하옵더니(하락)”

위의 내용을 통해 보면 12일 남문밖과 모정등에 주둔하고 있던 농민군은 그날 밤과 13일 새벽 통위영병과 일병으로 이루어진 30명의 토벌군 선발대와 1차 접전을 하여 20여명의 희생자를 내고 퇴각하였던 것이다. 수천 명이나 되는 농민군이 30명의 토벌군 선발대에 밀린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토벌군이 소지하고 있던 신식 무기때문이었

다. 토벌군 선발대와 1차 접전을 벌인 농민군은 무기의 열세로 인하여 자울재를 넘어 南面 古邑 등지로 퇴각하였다.

그러나 토벌군의 신식 무기의 위력에 밀려 퇴각했던 농민군은 13일부터 14일 사이에 다시 재집결하여 수만의 군세를 이루어 장흥부를 제차 포위하였다. 토벌군과의 전면전을 각오한듯 농민군의 위세는 대단했다. 물론 농민군의 지휘자는 이방언 이인환을 비롯한 장흥 지방 동학접주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5일 教導中隊長 李軫鎬가 이끄는 경군과 일본군의 본대가 장흥에 도착함으로써 전세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농민군은 고읍 방향으로부터 자울재(眠峙)를 넘어 石臺들을 가득 매우며 장흥부로 진격해 들어왔다. 그리하여 장흥에 도착하여 잠시 휴식중에 있던 교도중대를 비롯하여 12일에 먼저 도착했던 토벌군 선발대 등과 전면전이 개시되었다. 당시의 전투 상황을 교도중대장의 보고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금월 15일 장흥읍에 도착하여 읍의 사정을 살펴보니 (중략) 주둔하여 잠시 쉬는 사이 뜻밖에 비류 삼만명이 고봉 아래로부터 북쪽 후록 주봉까지 산과 들 가득히 수십리에 뻗혀 봉우리마다 나무 사이로 기를 쫓고 합성을 질러 서로 호응하며 포를 쏘아대며 날뛰어 창궐하니 그 세력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내 백성들은 창황분주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군 중위와 상의한 뒤 통위병정 30명으로 후록 주봉의 적을 막게 하고 교도중대 본대와 日兵은 장흥부 성 모퉁이 대나무 숲 아래 숨게 하고 먼저 민병 수 십명을 내보내 평원으로 유인하게 하였다. 사졸들이 분발하여 총을 들고 양로로 나누어 진격하여 죽 늘어서서 대열을 벌이고 접전하고 진격하면서 수 백명을 포살하였으며, 大小砲 4좌 回龍槍 1자루 기타 弓矢와 藥丸 잡다한 기물 등을 노획하였다. 20리를 더 추격하여 자오현에 이르니 해가 기울고 북풍이 차게 불고 군사들이 굶주린 기색이 있고 (중략) 그리하여 본진으로 돌아와 주둔하니 한편으로 환호하고 한편으로는 호곡하였다

위의 내용과 같이 古邑쪽으로부터 넘어온 농민군은 자울재를 넘어 석대들판을 가득 매우며 장흥부 쪽으로 진출해왔다. 압도적인 병력을 믿고 신식무기로 무장한 경군과 일본군에 맞선 것이다. 농민군이 경군 및 일본군의 유인 전술에 속아 산기슭으로부터 들판으로 밀고 내려오자 토벌군은 기다렸다는듯이 진을 벌여 일제사격을 하며 농민군을 공격해왔다. 기껏해야 2~30미터 밖에 나가지 않으며 심지에 불을 붙여 발사하는 조총으로 그리고 죽창이나 몽둥이 등으로 무장한 농민군은 수 백명의 희생자를 내고 자울재 너머로 통한의 퇴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식 무기의 위력앞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4) 玉山里전투

자울재를 넘어 퇴각한 농민군 4~5천명은 17일에 또다시 玉山里(현 장흥군 冠山 邑 玉堂里)에 재집결하여 최후의 항전을 벌였다. 여기서 다시 농민군 백여명이 포살되고 20여명이 생포되었으며 생포자중 10여명만이 풀려나고 나머지 농민군 역시 포살되었다. 이리하여 장흥일대에서 위세를 떨쳤던 농민군의 조직적 항전은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미 기울어진 대세는 장흥 지방 농민군들의 분투로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몇몇 살아남은 농민군들은 후일을 기약하며 피신의 길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

다. 그들은 자신들을 알고 있을 고향마을로 숨어들 수는 없었다. 15일 석대전투에서 농민군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이후 儒生들이 중심이 된 민보군들이 마을마을을 지키고 있었으며 이들 민보군들은 살아남은 농민군을 체포하기 위해 토벌군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살아남은 농민군들은 혹은 天冠山속으로, 혹은 강진의 大口·七良 방향으로, 혹은 보성쪽 會寧 방향으로, 혹은 會鎮 등 남쪽 바닷가 쪽으로 숨어들었다가 배를 타고 섬으로 숨어들기도 하였다.

5. 歷史的 意義